

## 어머니와 딸: 부양행동을 중심으로 한 노모 - 성인딸의 상호작용

조성원

카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강사

본 연구에서는 부양행동을 중심으로한 노모와 성인 딸간의 상호작용을 이론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개관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모녀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을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살펴보고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부양기대감, 상호원조 및 접촉의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이와 더불어 특히 여성이 일차적 부양자로서 인식되고 있는 이론적 근거와 모녀관계에서의 부양과 원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련시켜 보았다. 마지막으로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양부담도 및 갈등의 측면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I. 서론

Bernard(1975)는 “어머니노릇은 자녀가 집을 떠남으로서 끝나게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노릇과 자녀로서의 역할은 성인기를 통해서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더우기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가족내에서 부모-자녀 세대는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대간의 상호작용도 필연적으로 더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노부모와 성인자녀 모두에게 있어 세대간의 관계는 삶의 만족도나 인생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노부모는 성인자녀와의 지속적 관계를 통해 노년기의 의존감이나 소외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성인자녀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 자체에 만족감

을 느끼고 다양한 원조를 받으면서 긍정적 성장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대간의 관계속에서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세대간의 유대관계 중 가장 영속적이고 능동적인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사회에서는 부모를 돌보는 책임이 주로 아들에게 있었으므로 어머니와 성인딸간의 관계는 부양의 측면에서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자녀수의 감소 및 가치관의 변화, 가족법의 개정, 여성의 취업을 증가, 부모부양의식에서의 가치관의 변화등은 부양관계에 있어서 장남위주의 관계에서부터 딸과 기타자녀가 포함되는 관계로 변화해 가고 있다. 또한 노부모역시 교육수준 및 경제적 자립도, 의식수준 등에서 과거와 다르므로 딸의 부양참여도는 앞으로 계속 변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같은 성으로서의 동일화를 통해 유사한 생의 경험을 갖게되므로 다른 어떤 가족관계에서보다도 정서적으로나 애정적으로 높은 친밀도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성인자녀 가운데 특히 노모와 성인딸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어머니와 성인딸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종래에는 성인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입장이 강하므로 자녀가 도움을 제공하는 면만이 부각되어 왔으나 노부모도 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이러한 상호원조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부모-자녀간의 애정적 유대관계를 높이는데 영향준다는 최근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상호관계를 양방적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어머니 딸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부터 살펴 보겠다.

### 1. 어머니-딸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온 이론은 정신분석과 사회학습이론이다. 정신분석적 접근은 어머니의 가치와 행동에 대한 딸의 무의식적인 내면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학습이론은 모델링의 원리를 근거로 한다. 즉 사회학습의 관점에서 볼 때 딸은 어머니의 행동과 유사한 행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강화받음으로써 어머니처럼 되어가고 어머니의 태도와 행동을 학습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학습 이론은 아동의 성역할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되나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독특한 측면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모녀관계의 심리적 측면을 설명하는 현재의 이론은 주로 정신분석 모델을 근거로 하고 있다.

Chodorow(1978)는 어머니와 딸은 일생을 통하여 “개인적” 동일시를 계속 유지시켜 나간다고 보았다. 어머니는 모든 자녀들에게 초기의 양육자이며 일차적 동일시의 대상이다. 그러나 여아의 어머니에 대한 동일시는 일생을 통해 지속되는데 비해 남아의 어머니 동일시는 단절되면서 아버지에게로 전환된다. 딸의 어머니에 대한 지속적 동일시는 모녀관계를 유지시켜가면서 딸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며 이 결과 딸은 어머니를 좋아하고 있음을 스스로 지각하게 된다.

Chodorow가 어머니에 대한 딸의 동일시에 중점을 두었다면 Eichenbaum, Orbach (1983)는 딸에 대한 어머니의 동일시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모녀관계의 형성에 작용하는 세가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는 어머니는 딸과 성별이 갖고 자신을 재생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딸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둘째, 어머니는 자신에 대해 갖는 감정을 딸에게 투사하여 그 결과 자신과 딸을 분화시키지 못하게 된다. 셋째, 어머니의 딸을 대하는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대하는 행동과 유사하다. 또한 Hammer (1976)도 어머니는 딸을 통하여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녀 자신의 아동기를 재경험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성의 양육 및 부양행동에 근거하는 “보살핌의 윤리”는 초기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동일시에서 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녀간의 관계가 서로를 동일시하며 개별화의 구분이 항상 명확치 않기 때문에 딸은 어머니와의 분리를 이루기 위해 일생에 걸쳐 지속적인 갈등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자율성과 양육간의 갈등은 모녀관계를 설명하는 또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Litwin, 1986). 갈등으로 인해 딸은 “나”와 “우리”간을 분리하고자하는 지속적인 시도를 하는데 특히 성숙을 자율성과 동등하게 보는 사회에서 타인과

의 밀접한 친화는 성숙의 실패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 노모와 성인딸간의 상호작용

### 1)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에서의 역할과 부양기대감

일반적으로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애정과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며 자녀를 사회화 시키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며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기로 진입해감에 따라 이러한 구분은 덜 명확해져가며 부모-자녀 관계 또한 변화하기 시작한다.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시기는 자녀가 집을 떠나는 “빈 등지 시기”이다. 빈등지 현상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이전시기에 부모는 늦게까지 자녀를 낳았으므로 실제적으로 이런 시기가 거의 없었다. 빈등지 시기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이 시기가 여성에게 정체성위기와 우울증을 일으킨다고 보고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므로 가장 자유로움을 느끼는 시기라는 상반된 결과들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 시기가 여성들에게 생각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오히려 근래의 연구들은 부모에게 다시 돌아오는 성인자녀들에 관한 것이다. 높은 실업율과 이혼율의 증가로 자녀는 부모의 경제적, 정서적 지지를 필요로하거나 손자녀의 양육들을 이유로 같이 살게 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Mancini & Blieszner, 1989). 이러한 세대간의 동거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상호원조라는 이점도 있으나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노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계획과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생활방식의 차이, 혼잡스러움, 가사일과 경제적 부담의 증가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노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Blieszner & Mancini(1987)는 대부분의 노부모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들이 자신들을 필요로하고 조언을 구하며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부모노릇을 계속하는 것이 생애 새로운 흥미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으며 자식을 아랫사람으로서 보다는 친구로서 더 많이 생각하였다. 즉 자녀의 활동과 복지에 대한 관심, 애정, 원조의 교환, 책임감등을 큰 부담으로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의 빈등지가 자녀에 의해 다시 채워지는 최근의 현상이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노부모 성인자녀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지에 관해 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eelbach(1984)는 성인자녀에 대한 노부모의 부양기대감을 분석한 결과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자녀와 더 함께 살고 싶어하며 특히 홀로 되거나 소득이 낮고 건강이 나쁜 노인일수록 자녀에 대한 부양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Blieszner & Mancini(1987)의 연구에서 부모들은 가족의 근접성이나 직접적인 부양보다는 성인자녀로부터의 애정과 존경, 사려깊은 관심, 솔직하고 개방된 빈번한 대화를 갖기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부모들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자녀로부터의 물질적인 원조보다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더 바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노인들은 성인자녀와의 동거기대가 높으며 전체노인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부양형태는 경제적 부양이지만 여자노인은 특히 정서적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부양에 대해 더 많은 불만과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김태현, 1981).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높은 부양기대는 부모

-자녀관계의 질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Seelbach, 1978 : Quinn, 1983). 성인 자녀에게 높은 기대감을 가질수록 부모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므로 이는 세대간의 갈등과 긴장을 가져올 수 있다. 즉 높은 부양기대는 일차적으로 자녀와의 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국 부모-자녀관계에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성인자녀가 자신의 일과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수행하는 시기에 있다면 이러한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부양기대감이나 의무감을 갖는 동기요인은 세가지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다. 첫째는 도덕적, 사회적 기대요인으로 노부모의 욕구에 반응하는 자녀의 의무감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부모부양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사회교환이론의 공평성에 근거한 논리로,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 사회화, 보호등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으므로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은혜와 도움에 일종의 부채가 있는 느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채감이 자녀에게 노부모와 접촉하고 봉양을 하도록 동기화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애착에 근거한 기대요인으로서 부양태도, 기대감등은 사랑과 상호의존감의 결과로 나타난다. 부모-자녀간에 생의 초기에 형성된 애정적 유대는 전생애를 통해 지속되어 애착대상인 부모가 취약한 상황에 놓일 경우 애착은 긍정적 감정으로 작용하여 부양행동을 동기화시킨다.

## 2) 접촉과 상호원조

한 세대가 다른 세대와 접촉하고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관심과 존경을 나타내는 표시이자 가족생활의 질을 평가하는 행동지표로 간주되어 왔다. 노부모와 성인자녀는 서로가 지원자이자 수혜자가 된다. 접촉의 관점에서 성

인자녀와 부모간의 지리적 근접성은 유대관계와 상호작용의 양과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부모와 자녀간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거주하면서 평균 한달에 한 번 정도의 대면접촉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전화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가 낮은 부모보다 자녀로부터 멀리 사는 경향이 있었고 경제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대면접촉은 적었으나 전화접촉은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병은, 1990).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접촉은 노부모의 욕구및 자원, 자녀의 유용성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부모의 나이나 건강, 일상활동 수행 정도는 자녀와의 접촉에 영향을 준다. 둘째, 노부모의 수입이나 교육수준은 자녀와의 동거여부, 부모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 자녀와 결합 여부나 접촉의 양에 영향을 주게된다. 셋째, 자녀가 많을수록, 가까이 사는 자녀일수록 부모와 더 많은 접촉을 시도하게 된다(전길양, 김태현, 1993).

세대간의 원조활동은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가는 하향적 원조, 중년세대에서 노부모세대에게 제공되는 상향적 원조와 모든 세대간에서 상호적으로 흐르는 원조등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원조의 흐름은 부모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부모로 흐르는 주어지는 원조, 받는 원조의 2개 방향이 있으며 대개 부모에서 자녀로 흐르다 부모가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서 역할반전이 나타나 거꾸로 되는 경향이 있다(Lang & Brody, 1983).

상호원조와 교환은 실질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의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구체적으로는 병이 났을 때 보살펴주는 것, 금전과 선물의 제공, 심부름해주기, 식사준비, 자녀 돌보기, 가정과 직장의 일에 관한 조언 구하기, 청소와 수리, 교통수단의 제공, 인생 문제에 대한 상의,

정서적 지지와 애정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상호원조와 교환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도구적 측면과 애정적 측면 모두에서 세대간의 유대관계와 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Mancini & Blieszner, 1989).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취업 증가 및 그에 따른 자녀양육, 가사일 수행의 어려움, 도시의 주택난 등으로 인하여 부모-자녀 세대간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 노부모 역시 의학의 발달, 경제성장등으로 인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덜 어려운 노년기를 보냄으로써 성인자녀의 욕구에 응할 수 있는 신체적, 경제적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결과 성인자녀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원함으로서 그에 따른 혜택(손자녀 돌보기, 집안일 돌보아주기, 경제적 도움)을 받고자하는 것이 새로운 추세가 되고 있다. 윤순덕과 한경혜는(1994)는 기혼여성이 노부모와 동거함으로써 지각하는 혜택과 댓가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 성인자녀는 노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혜택으로서 집봐주기, 손자녀 돌보기, 청소, 부엌일과 세탁일을 보고하였고 댓가로서는 심리적 부담, 의견충돌, 행동의 제약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동거에 따른 댓가보다 혜택의 측면을 더 높이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와의 동거를 부양부담으로만 접근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부모와의 동거가 자녀세대에게 유용한 지원체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성은 관계성의 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노부모의 측면에서 볼 때 부모는 여러 종류의 원조를 자녀에게 계속 제공하지만 동시에 자녀로부터 원조를 받는 수혜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부모와 성인자녀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제공자이거나 수혜자인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의

질과 지속성 여부는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역할과 기능을 제공하느냐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할 수 있다.

### 3. 딸에 의해 제공되는 부양요인

부모부양에 대해 한 자녀들이 갖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들, 딸, 형제순위와 무관하게 비교적 유사할지라도 실제로 직접적인 부양의 일을 담당하는 것은 며느리이거나 딸인 여성이다. 아들은 대부분 재정적 원조의 제공이나 의사결정과 같은 부양관리자의 역할을 맡는데 비해 딸이나 며느리는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자역할을 한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과 생의 경험을 갖는다는 견해는 부양역할에서도 성차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여성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타인을 돌보는 양육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남성에 비해 더 적합하다고 여겨져 왔다. 따라서 여성이 부양자로서 더 적절하다고 여겨져온 이론적 근거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1) 여성의 부양자 요인

*심리적 및 개인적 관점.* 이 관점은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에게 더 감정적 친밀감이나 정서적 유대를 발달시키게 되므로 딸이 실질적 부양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여성들은 성장과정을 통하여 타인을 돌보고 그들과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관계적 특성을 정체감으로 발달시키게 된다. 따라서 타인을 돌보는 행동은 어머니와의 동일시과정을 통하여 여성에게 내면화된 정체감을 형성하고 이러한 경험은 다른 양육적인 일까지 일반화된다. 그 결과 여성은 타인의 욕구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러한 모성적 특성에 맞는 부양태도를 갖게 되며 남성보다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가 더 강하게 된다. 따라서 심리적

및 개인적 관점은 여성이 정체감 형성과정에서 양육자로서, 부양자로서의 특성을 습득하게 되며 모성의 재생산적 측면에서 타인을 돌보는 부양자적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성역할 사회화의 관점.** 이 관점은 성역할에 대한 문화적 요인과 양육적 과업을 수행하는 여성의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의 일차적 부양자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Parsons 와 Bales는 역할의 분화가 산업화의 결과로 발생하여 남자는 도구적 역할을 여성은 표현적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보았다. 즉 남성은 가족의 생계담당자이며 가족과 외부세계의 연계에 책임이 있고 여성은 가족을 돌보고 가족구성원의 사회, 정서적인 욕구를 돌보도록 이분화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화과정은 여성은 가정에서 일차적 기능을 하고 남성은 공적영역에서 일차적 기능을 하도록 사회화시키며 결과적으로 노부모 부양에 성별화된 측면에서 각자 기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관점은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학습된 성역할태도가 가족내의 노동분업에 영향을 미치게되어 여성에게 양육적인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나 책임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자원의 권력관계 관점.** 이 관점은 생산자는 소비자보다 더 큰 힘과 지위를 가지며 가치있는 상품의 분배를 통제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힘과 위신이 발생한다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한다. 여성의 주된 역할인 출산과 양육의 역할은 가치있는 생산자 역할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사회에서 남성의 직업적 기여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왔다. 여성의 역할은 무급노동이므로 사회적 가치도에서도 낮았다. 즉 소득이나 교육과 같은 외적으로 획득된 상대적 자원들이 가족내의 권력역동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이 있거나 보다 더 큰 자원을 가

진 사람들이 가족협상에서도 그러한 자원을 권력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2) 어머니-딸 간의 관계에서의 부양과 원조

어머니와 성인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성인의 딸은 어머니를 생의 동반자로서 또한 노화과정을 같이 겪어나가는 역할모델로서 동일시하며 대체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혀왔다(Baruch & Barnett, 1983 : Fischer, 1981). Fischer (1981)는 모녀관계의 질은 딸이 규범적인 생의 단계로 접어들어감에 따라 즉, 결혼을 하게되고 어머니가 됨에 따라 더욱 가까워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Baruch 와 Barnett (1983)는 자녀가 성인기에 들어서 는 것만으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경험을하게 되며 딸의 결혼여부나 출산여부보다는 어머니의 건강과 같은 부모변인이 모녀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Lang과 Brody (1982)는 직업을 가진 결혼한 딸은 직업이 없거나 미혼인 딸보다 어머니에 대한 관심과 부양행동을 훨씬 덜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에게 제공되는 원조의 정도에 영향주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딸의 연령, 결혼여부, 생활 조건등이 모두 관련되었으나 특히 생활조건이 가장 큰 관련이 있었다. 즉, 어머니와 함께 사는 딸이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하였다. 어머니의 편에서는 딸에게 바라는 가장 큰 기대는 정서적 지지와 동반의식이었다. 그러나 Horowitz, Sherman 과 Durmaskin(1983)은 딸의 취업과 어머니부양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부양자로서의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간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직장을 가진 딸은 재정적으로 더 원조를 하는 반면 직장이 없는 딸은 가사일에 관련된 조언을 더 많이 해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딸은 경제적, 정서적 서어비스 측면 모두에서 어머니에게 받는 것 보다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받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서어비스나 정서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었다. 특히 육체적 힘을 필요로하는 가사일에 있어서는 자녀와 큰 차이없이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딸과 어머니 모두 자신이 자원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상대방도 도울 수 있었다. 자녀의 경우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높을 때 어머니를 경제적, 정서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었고 어머니의 경우도 나이가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더 도움을 주었다(민무숙, 1995).

성인 딸에 대한 노모의 부양기대감을 연구한 전길양과 김태현(1993)은 딸에 대해 노모가 심리적 모성특성을 높히 지각할수록 딸에 대한 친밀감을 더 높게 지각하며 이에 따른 정서적 부양도의 기대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즉 우리나라 노모의 딸에 대한 기대는 경제나 서비스의 측면보다는 정서적측면의 기대라 할 수 있다. 이는 노부모들이 아직까지는 경제적 부양은 아들에게 일차적으로 있다는 전통적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며 딸에게 규범적인 기대보다는 개인적이며 감정적인 관계를 더 바라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모의 성인딸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성인딸은 노인들의 고독, 우울, 소외감 경험시에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시사한다.

#### 4. 노부모-성인자녀간의 갈등및 부양부담도

노부모와 자녀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갈등이 개 개인의 가치와 태도의 차이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노부모와 자녀간의 세대차이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는 노인의 의존성으로 인한 갈등으로 노부모가 경제적으

로나 신체적으로 의존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자녀의 원조가 많아질수록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밀의 감정은 감소한다는 것이다(Baruch & Barnett, 1983). 즉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상호원조와 호혜가 감소하게되면 성인자녀는 교환의 불공평성을 인지하게되어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갈등과 관련되어 부양과정에서 생기는 부양부담도는 부양자가 피부양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게되는 여러가지 육체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의미한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가족기능과 가족구성원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의무감에 수반되는 다양한 요구는 세대간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일차적 부양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은 자녀를 돌보는 것과 노부모를 돌보는 것간의 우선권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이에 따른 시간과 에너지,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다루어야할지를 정하는데 갈등을 겪게 된다. 특히 중년기에 있는 여성들은 부모부양이외의 다양한 책임과 역할로 인해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게 되고 부양의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Mui, 1992). 특히 노부모가 인지적으로 손상이 되어 일상의 과업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적 기능이나 행동상의 결함을 보이는 경우 부양의 어려움은 가장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 때 성인자녀가 겪는 부담감은 노부모의 쇠퇴정도 자체이기보다는 수행해야하는 과업의 종류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자녀들은 시장보거나 청소와 같은 보살핌보다는 신체적 접촉등을 필요로하는 보살핌을 더 힘들어 하였다(Montgomery, Gonyea,& Hocyman, 1985)

부양부담도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성인자녀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을 때, 직업이 없거나 있어도 지위가 낮은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많을 때, 성인자녀가 돌보

아야 할 자녀의 수가 많을 때 부양부담도는 증가되었다. 노부모와 관련된 변인의 경우 자녀들은 노부모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또 여자노인 보다는 남자노인일 경우 부양하기 힘들다고 지각하였다. 특히 노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충분치 않을 때 성인자녀의 부양부담은 가장 커지고 양자간의 주된 갈등요인이 되었다(최정혜, 1992). 이러한 부양 부담도는 중년여성의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게 되어 자녀들은 신체적 건강의 악화, 우울과 걱정, 분노, 무력감, 불면증, 사기의 저하와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민무숙(1995)은 결혼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 자녀는 부양부담감을 높게 갖고 있었으나 결혼연수가 16년 이상이 되는 경우 부모를 모시는데 있어서 부담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노부모 부양에서 경제적인 안정이 부양부담감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대화나 의논상태가 되는 정서적 원조와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등의 서어비스 원조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부양부담도는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전통적인 효의식에 의해 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을 자녀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할것이 아니라 양자모두가 서로에게 부족한 자원을 보충해주고 배분다면 부양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긴장과 갈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Strawbridge와 Wallhagen(1991)은 세대간에 갈등이 있는 집단과 갈등이 없는 집단간의 부양부담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세대간에 갈등이 많은 집단이 부양부담감을 더 크게 인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Sheehan과 Nuttall(1988)의 연구에서도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갈등은 부양역할에서 성인자녀의 긴장과 부정적 감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변인임을 밝혔다. 즉 세대간의 역할긴장 및 부양부담도는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관계의 질이 낮을때 더욱

커지며 결국 이러한 부모자녀관계는 현재의 부양행동은 물론, 앞으로의 부양참여에도 영향을 미칠것임을 시사한다.

## 5. 앞으로의 연구방향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개관에 기초하여 성인의 딸과 노부모간의 관계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노부모-성인자녀 관계의 발달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나 이에 근거한 연구결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부모자녀관계는 전생애과정을 통해 계속 지속되는 것이며 특히 성인자녀와 부모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생의 특정 시기에서만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 관계에서부터 계속 지속되어온 관계의 성질에 따라 영향 받는다고 여겨지므로 초기의 애착관계나 상호작용유형과 연관시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노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부양행동 및 세대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론 및 개념적 틀을 근거로 한 연구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기술적 연구와 관련시켜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앞으로의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론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대책방안들은 비효율적이거나 잘못된 결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연구는 양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가족간의 관계나 세대간의 역동, 그 관계속에서 개개인의 심리적 경험등은 매우 복잡한 특징을 지니므로 양적 접근법으로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질적 접근법은 탄탄한 이론을 설정하고 개념적 모호성을 명확히하는 장점이 있다.



세째, 성인자녀와 노부모 관계는 양방적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가족의 틀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므로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선행연구는 이원적인 성인자녀-부모관계에만 중점을 두어 왔으므로 앞으로는 가족내에서 3세대간의 관계, 기타 다른 가족간의 관계등이 성인자녀와 부모의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관계내에서, 중년기 자녀로서의 여성의 역할과 위치 및 노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더 다양한 분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태현 (1981). 한국에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가족부양의 실태와 부양만족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무숙 (1995). 노모와 성인딸/며느리간의 상호원조유형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1), 74-90.
- 윤순덕, 한경혜 (1994). 도시 기혼여성이 지각한 노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혜택-비용. 한국노년학, 14(2), 105-120.
- 전길양, 김태현 (1993). 노모와 성인딸간의 상호작용과 부양기대감. 한국노년학, 13, 17-38.
- 조병은 (1990).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 105-124.
- 최경혜 (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Baruch, G., & Barnett, R. C. (1983). Adult daughters'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601-606.
- Bernard, J. (1975). Women, Wives, Mothers. Chicago: Aldine.
- Blieszner, R., & Mancini, J. A. (1987). Enduring ties : Older adults' parental role and responsibilities. Family Relations, 36, 176-180.
- Chodorow, J. (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ichenbaum, L., & Orbach, S. (1983). Understanding Women. New York : Basic Books.
- Fischer, L. (1981). Transitions in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613-622.
- Hammer, S. (1976). Daughters and Mothers: Mothers and Daughters. New York : New American Library.
- Horowitz, A., Sherman, R., & Durmaskin, S. (1983). Employment and daughter caregivers : A working partnership for older people? Paper presented at the 36th annual meeting of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San Francisco.
- Lang, A. M., & Brody, E. M. (1982). Characteristics of middle aged daughters and help to their elderly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196-199.
- Litwin, D. (1986). Autonomy : A conflict for women. In J. Alpert (ed.), Psychoanalysis and Women(pp. 183-213). Hillsdale, NJ : Analytic Press.

- Mancini, J. A., & Blieszner, R. (1989).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 Reserch themes in intergenerational rel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275-290.
- Montgomery, R. J. V., Gonyea, J. G., & Hooyman, N. R. (1985). Caregiving and the experience of subjective and objective burden. Family Relations, *34(1)*, 19-26.
- Mui, A. C. (1992). Caregiver strain among black and white daughter caregivers : A role theory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32(2)*, 203-212.
- Pruchno, R. A., & Resche, N. L. (1989). Husbands and wives as caregivers : Antecedents of depression and burden. The Gerontologist, *29(2)*, 159-165.
- Quinn, W. H. (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7-73.
- Seelbach, W. C. (1978). Correlates of aged parents'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s and realizations. The Family Coordinator, *27*, 341-350.
- Seelbach, W. C. (1984). Filial responsibility and the care of aging family members. In *W.H.Quinn & G.A. Hughston(Eds.), Independent aging : family and social systems perspective* pp. 92-105). Rockville, MD: Aspen.
- Sheehan, N. W., & Nuttal, D. (1988). Conflict, emotion, and personal strain among family caregivers. Family Relations, *37*, 92-98.
- Strawbridge, W. J., & Wallhagen, M. I. (1991). Impact of family conflict on adult child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1(6)*, 770-777.